

부부가 함께 살면 장수한다

사립대학 교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가 남편의 장수 여부를 물어본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 장수한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현데, 수명은 유전적 바탕 위에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 및 식생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의 경우, 80세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전체의 45.5%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혼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면 건강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발표된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혼한 가구주의 수는 5년전보다 무려 98.9%나 증가했습니다.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본 허망한 느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야 할 40대가 “나홀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40대 사망률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분석연구>창간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자의 사고사 비율이 여자보다 무려 3배반이나 높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사고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평소 행동을 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남자나 여자나 이혼상태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사고의 비중이 나타납니다. 이혼과 함께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을 “꼭” 마신다는 주당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도 이혼한 남자들이 83%, 여자는 45%로 나타났습니다. 이혼하면 남자나 여자나 소주를 마셔야 할까요? 아무튼 이혼과 소주와의 함수관계를 연구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살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자는 3배, 남자는 7배나 높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혼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몰락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사고는 묘한 인연이 있나봅니다. 어찌면 약속이나 하듯 대졸, 고졸, 중졸, 국졸 순서대로 이혼과 사고가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정녕 이혼과 사고는 학력이 높아야 하나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혼청구를 낸 남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버립니다. 이상하게도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이혼한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차를 거칠게 몰았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약도 좋고 스포츠도 좋지만 우선 건강장수를 누리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틀림없이 무병장수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PPFK